

한기주 756일만에 세이브

‘TK 목장의 결투’ KIA, 삼성에 4-2 승리
심동섭 3승 ... 이현곤 2타점 공·수 맹활약



KIA가 ‘TK목장의 결투’에서 워닝시리즈를 연출하며 1위에 올라섰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11차전에서 로페즈의 조기 강판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불펜 맞대결에서 4-2로 승리를 거뒀다. KIA는 적지에서 15일 윤석민의 1피안타 완봉승과 함께 2승1패를 가져오면서 정상을 탈환했다.
1-1로 맞선 2회말 로페즈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물러나 예상치 못한 불펜대결이 전개됐다.
2회말 첫 타자 최형우에게 2루타를 맞은 로페즈가 조영훈에게 중견수 키를 넘기는 장타를 연달아 허용했다. 그사이 2루주자 최형우가 홈에 들어왔고 이영욱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무사 3루가 됐다.
1사 3루에서 이영욱을 상대하던 로페즈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김희걸이 급히 마운드에 투입됐다. 김희걸은 이영욱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현재운을 투수 앞 땅볼로 잡아내면서 역전 위기를 마무리 했다.
3회말 2사 1-2루의 위기는 좌완 필승조 심동섭이 해결이 했다. 심동섭은 거포 최형우

를 중견수플라이로 막으며 이닝을 종료했다. 4회초 최희섭의 볼넷으로 KIA의 공격이 시작됐다. 안치홍의 우전안타와 차일목의 볼넷으로 2사 만루, 이현곤이 중전안타로 두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면서 3-1을 만들었다. KIA는 마운드 물량공세로 승리 지키기에 나섰다. 심동섭에 이어 3-2로 앞선 6회 이상화가 마운드를 물러받았다. 이상화는 이영욱에게 2루타를 맞기는 했지만 탈삼진 두개를 잡아내며 6회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7회말 무사 1루에서는 한기주가 등판했다. 지난 14일 두산전에서 1799일만에 선발로 나선 한기주의 복귀 후 두 번째 등판. 신명철·박한이·박석민을 삼자범퇴로 물러세운 한기주는 4번타자 최형우부터 시작된 8회말에도 플라이 3개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다.
한기주는 9회까지 책임졌다. 6개의 공으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은 한기주는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지난 2009년 6월 21일 롯데와의 사직 경기 이후 756일만의 세이브를 기록했다.
2와 3분의 1이닝을 3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막은 2년차 좌완 심동섭은 3승째를 신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한기주가 17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2차전에서 7회 말 무사 1루의 위기에서 등판,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고 있다. <기아타이거즈 제공>

‘셔틀콕 왕자’ 이용대 2관왕

미국오픈, 남자복식 이어 하정은과 짝 혼복 우승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혼합복식으로 호흡을 맞춘 이용대(삼성전기)-하정은(대교농높이)이 부진을 털고 첫 국제대회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이용대-하정은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오렌지카운티 배드민턴클럽에서 열린 2011 미국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골드 혼합복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6위인 천홍림-천원심(대만)을 2-0(21-19 21-13)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내년 런던 올림픽을 겨냥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혼합복식을 이룬 이용대-하정은이 올해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불참한 대회지만 이용대-하정은의 이번 우승은 의미가 남다르다.
대표팀은 2008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이용대의 짝이었던 이효정(삼성전기)이 태극마크를 반납하자 올림픽 2연패 달성을 위한 최적 파트너로 하정은을 낙점했다.

그러나 이용대-하정은은 3월부터 치른 국제대회에서 좀처럼 ‘찰떡 호흡’을 보여주지 못해 코칭스태프의 걱정을 자아냈다.
게다가 2012년 5월 첫째 주 발표되는 세계랭킹 기준 최소 15위 이내에 들어야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지만 이용대-하정은은 세계랭킹 65위에 그쳐 랭킹포인트 획득이 시급했다.
이용대-하정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자신감 회복과 랭킹 상승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얻게 됐다.
특히 이용대는 고성현(김천시청)과 출전한 남자복식 결승에서도 세계랭킹 16위인 미국의 하워드 바흐-로니 구나완을 2-0(21-9 21-19)으로 꺾고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편 한국 선수끼리 맞붙은 여자복식에서는 김하나(한국체대)-정경은(한국인삼공사)이 하정은-김민정(전북은행)에 2-1(14-21 22-20 21-18)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하키 4개국 대회 우승

이남용 해트트릭 ... 뉴질랜드 4-3 꺾어

한국 남자하키대표팀이 영국에서 열린 4개국 국제남자하키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뉴질랜드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선취점을 허용하고도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남용(성남시청)의 활약에 힘입어 뉴질랜드를 4-3으로 눌렀다.
한국은 전반 7분 뉴질랜드에 선취골을 내주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22분과 23분에 각각 한 골씩 넣어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48분에는 이남용의 추가 골로 점수차를 벌려 경기를 쉽게 끝내는 듯했으나 뉴질랜드가 후반 55분과 62분에 연속 득점을 올려 3-3 동점이 됐다.
그러나 후반 65분 이남용이 승리를 결정짓는 썩기골을 터뜨려 승리의 여신은 한국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남용은 지난 13일 영국전에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한국이 우승컵을 차지한 이 대회에서 뉴질랜드가 준우승, 영국과 벨기에가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이남용이 16일(현지시간) 런던 퀸트 호크 레크리에이션 그라운드에서 열린 4개국 국제남자하키대회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후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신수지 복귀전 은메달

오른쪽 발목 수술 후 재활로 구슬땀을 흘려온 리듬체조 ‘원조 간판’ 신수지(20·세종대)가 8개월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개인종합 2위에 올랐다.
신수지는 16일 김포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회암배 리듬체조대회 대학부 개인종합에서 볼(24.475점)-후보(24.875점)-리본(24.775점)-곤봉(24.075점) 4종목 합계 98.200점을 받아 김윤희(세종대·99.125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양대의 이기연이 85.00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올해 1월 오른쪽 발목 삼각 인대 3개 중 2개를 잇는 수술을 한 신수지는 컨디션 악화로 종목별 결승 경기는 결장했다.
신수지는 “성적보다 8개월 만에 치른 경기를 큰 부상 없이 마쳤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교야구 비 때문에 웃고 울고

전라리그 1위를 노리고 있는 광주일고가 비 때문에 울상이다.
지난달 11일 고교야구 주말리그 광역리그가 시작되면서 왕중왕을 향한 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전반기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일고는 이번 광역리그에서도 우승 후보.
하지만 화순고에 5경기를 치르는 동안 광주일고는 비 때문에 2경기 밖에 소화하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16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청주고와의 경기도 1-0으로 앞서고 있

던 3회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되면서 향후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29일 광역리그 왕중왕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광주일고는 이번 주에 남은 4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군산·청주·광주를 오가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17일 오후 12시30분 대전고와 군산월명구장에서 경기를 치른 광주일고는 곧바로 18일 오전 10시30분 청주로 건너가 천안 북일고와 대결을 벌여야 한다. 20일 오후 12시30

광주일고 주 4경기 ‘살인 일정’ 화순고 이미 5경기 치러 ‘여유’

분에는 무등경기장에서 세광고와 대결한다. 우천으로 중단된 청주고와의 경기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5연승으로 전반기 전라리그 1위를 차지하며 왕중왕전에 진출했던 광주일고의 광역리그 1위 수성도 안갯속에 빠졌다. 광역리그 경우 승수가 같을 경우 최소실점으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여유있게 경기를 치른 화순고는 5경기에서 11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일고 김선섭 감독은 “청주고와의 경기에서 많은 비가 내려 그라운드가 미끄러

워 두 차레나 3루 공과가 발생했다. 점수를 더 뺐었다면 투수 운영에서도 여유롭게 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다”며 “군산·청주·광주 일정이 이어지면서 경비도 많이 들고 마운드 운영 등에서도 어려움이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동성고는 16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북일고와의 경기에서 5-2로 3승(1패)째를 수확했고, 효천고는 세광고에 3-4 역전패를 당해 1승 3패가 됐다.
17일 경기에서는 전주고가 충주성심학교를 9-7로 꺾고 3연패 뒤 1승을 올렸다. 진흥고는 공주고를 상대로 15-6, 7회 콜드게임승을 거두며 3승1패를 기록했다. 대전고를 상대로 화순고는 6-3으로 5연승을 내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페백식 / 페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